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英蘇交涉의 前途

一

蘇聯의모로토프新外交人民委員이 지난 三十一日에 最高會議에서 行한 演說로 보면 英蘇協定에 對한 蘇聯의 態度는 大槪 아래와 갓다고 解釋되나 첫재 保障의 範圍를 蘇聯의 生命線인 발틱海岸까지 延長하자는것이요 둘재 協定의 性質을 좀더 强力的으로 만들어서 軍事同盟에 가깝게 하자는 것이다. 即 現在 英國의 提案과가치 波蘭과 羅馬尼亞의 保障에 限한다면 발틱海에 面한 西部國境은 依然 蘇聯의 單獨保障으로 돌아 가게 되며 또 그여시 英國의 提案과 가치 聯盟規約에 依한 互相援助에 끄친다면 그것은 在來의 例로 보아서 何等의 實質的 成果를 가저 오지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演說에서 우리는 獨伊에 對한 秋波와 함께 蔣政權을 擁護하고 帝國을 攻擊하는 無禮한 言句를 尋常히 보아 버리어서는 안 된다. 지금 蘇聯은 西歐에 잇서서 比較的 有利한 立場을 利用하여 가지고 獨伊와 接近하야 防共協定을 離間 하거나 英佛과 握手하야 極東의 積極的 進出을 도모하거나 하려는 野心을 內包하고 잇는것이 分明하지 안 한가고 推測된다.

二

本來 체빔린 英首相은 문헨協定으로써 獨逸의 東進로 蘇聯을 牽制하야 西歐의 平和를 保障하려든 것이나 일은 意外로 逆轉되어 英國 스스로 波蘭과 羅馬尼亞의 保障을 聲明하는 同時에 그 保障에 蘇聯을 引入코자 焦燥하기에까지 이르렀다 老獪한 英國의 外交로도 結局 自繩自縛의 境遇에 다닷고 보즉 蘇聯은 도리어 强硬한 態度로 나아 와서 리트비노프外交人民委員長을 罷免시키고 포톰킨外交次長의 주네브行을 阻止하고 나종에는 모로토프의 强硬한 演說까지 듯게 된 것이다. 勿論 現下 蘇聯의 態度는 문헨協定에 對한 猜疑의 感情이 아직 남아 잇고 또 英佛의 弱點을 엿본 自家一流의 에누리도 全혀 업지 안 할 것이로되 英國이 提案한 程度로 讓步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업는 것만은 事實이 아닐까 한다. 陰險한 蘇聯의 政策으로서는 英佛과 握手하야 極東에 積極的 進出을 하거나 獨伊와 接近하야 防共協定을 離間하는 그 以上으로 오히려 英佛對獨伊의 戰爭을 促進시키고 自國은 그 圈外에 서서 最後의 만흔 收穫을 꿈꾸지 말란 法도 업는 일이다.

三

何如튼 英蘇協定의 交涉이 어떠케 進行되느냐는 것은 極東에 잇서서도 重大한 影響을 미칠것이매 우리들이 다함께 關心을 要하는 바다. 노몬한과 長嶺子等地에 蘇聯은 연거퍼 不法越境을 敢行하야 皇軍의 威力아래 番番이 擊退를 當하엿거니와 그러한 事件도 現下의 國際情勢에 對處한 蘇聯의 [illegible]가 아닐까고 의심한다. 그러나 답답한것은 英國이니 極東에 잇서서는 突然한 援蔣으로 帝國의 親和를 일헛고 西歐에 잇서서는 獨伊와의 對立으로 最後의 危機를 直面하게 되지 안 헷는가. 그래서 급자기 蘇聯을 부뜰려고 날치나 西에 잇서 對獨伊의 壓力을 增强하는 대신 오도 東에 잇서 帝國과의 正面對立을 招致하게될 危險가잇지안흔가。 蘇聯은 [illegible] 援蔣을 公言하지마는 張鼓峰事件以後 蘇聯의 實力이 [illegible] 것이 아니라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英國도 西歐에잇서 多少의 도움을 가저 東亞에 잇는 [illegible] 바꾸지는 안흘것인즉 蘇聯의 軍事同盟案을 英國도 應從하리라고는 미지안는다。

三國側妥協的態度 形勢는有利히展開?

重視되는各領事와의個別會見

鼓浪嶼問題

【厦門五日發同盟】鼓浪嶼工部局改組에 關한 我方의 五個條要求에 關하야는 前後二回의 領事團會議에서 我方의 眞意가 英米佛에 諒解되엿스며 三國側은 漸次軟化되어 妥協的態度로 나왓스므로 內田領事는 海軍首腦部와 重要協議를 한後 五日午後三時부터 三國領事를 各其官邸로 訪問하야 問題의 中心이되어잇는 第三條"暫定總監"은 日本人으로하고 日本人職員을 多數採用할것』을 다시 具體化한 文書를 手交하기로된바 右會議後工部局에서 힛치유크參事會長과도 會見키로 되엿는대 右要求文書는 我方의 最後的態度를 示한것으로 形勢는 極히 有利히 展開되는 模樣으로 推移如何에 依해서는 如何한 進展을 볼는지도 알수업서 重視되고잇다

機構改革에伴한 商工省人事異動

【東京電話同盟】商工省은 商工行政機構의 劃期的 大改正에 對하여 政府에서는 諸官制案이 七日의 樞府本會議에서 可決되면 直時同案件의 御下渡를기다려 來九日의定例閣議에 附議決定하기로되엇는데 이와同時에 機構改正에伴할 商工省人事의 異動은 八田商相 村瀨次官의 손으로 銓衡에 着手하여 來十五日頃官制의 公布와함께 發令하기로되엇고 新陣容의首腦部에 對하여는 村瀨次官은그대로잇고 物價局次長에는 現物資調整局次長 竹內可吉氏가 就任하기로 內定되엇다

佛大使海防向發 重慶도再次訪問乎

【上海五日發同盟】코스메駐支佛大使는 五日上海出港의 佛國軍艦 라모트・피・카駿로 海防으로 向하엿다 海防으로부터 重慶으로가서 國府當局과 各種案件의 折衝을 遂할豫定이라고한다 코스메大使는 去四月重慶에서 信任狀을 捧呈하고上海로歸任初의일로 再次重慶行은 자못注目된다

平沼首相參內 對歐策을奏上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 五日午後三時五十分 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去二十日의 五相會議에서 決定된 帝國政府의 對歐洲策具體化에 關한 大綱에對하야 去三日及 五日兩次에 亘하야 陸海兩相及 有田外相과 打合한結果를 委曲奏上하고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한後 退下하엿는데 이가치하여 政府의 對歐策具體化에 伴한 帝國政府로서의 方針及 處置를 完了하게 되엇스므로 即時 有田外相으로하여금 必要한 措置를 取케하기로 되엇다

對歐策具體化經過 首相閣議서說明

【東京電話同盟】平沼首相은五日 對歐策具體化를爲한 帝國政府로서의 方針及措置를 了하엿스므로六日定例閣議席上 그經過를 說明同日閣僚參議懇談會席上各參議에 對하여說明各其의諒解를 求하기로되엇다

御歌會

【東京電話同盟】宮中月次御歌會는 五日午前十時부터 宮中南溜間에서 開催되엇는바 惶恐하옵시게도 御通題로서『暗夜螢』外에 時局을 御軫念하옵시사 特히『消費節約』의 御題를下賜하옵시어 三條御歌所長以下一同은 恐懼感激하여 詠進하엿다

◇…敵機의 越境을 嚴重監視하는 我○○部隊(蘇滿國境)

蘇聯、長嶺子前面에 戰車十臺、重砲十門、兵六百增派

我軍은不侵方針下嚴戒

【琿春五日發同盟】駱駝山事件이 突發하자 蘇聯은急히長嶺子前面에戰車十臺、重砲十門、兵約六百을 增派하엿는바 그後彼等은進出하는 模樣이업고 彼我對峙中인데 我方은 萬一을 考慮再次不法挑戰의 擧에나오면 斷乎膺懲하려고 嚴戒中이다

【琿春五日發同盟】駱駝山事件發生後我軍의 武威에 怯을 내인 蘇軍을 國境線外에서 沈默을지키고 잇는데 我軍은 어데까지나 不侵不犯의 方針을 堅持하고 國境線을 嚴戒하고잇다 連日의 細雨도 四日朝부터 개여 事態도 漸次平靜에 向하고 잇는模樣으로 皇軍의 威武는 滿蘇國境에 堂堂히 빗나고잇다

問題의駱駝山은 軍事上要地

【○○五日發同盟】三日琿春長嶺子附近에잇서서의 日蘇兩軍衝突에 對하여 日滿側은 緊張裡에 事態의 推移를 注視하고잇는데 彼等의 態度如何론 斷乎膺懲코저 我○○部隊는 嚴戒中이다 駱駝山은 琿春東方約二十里의 地點에잇는 一道河子를 眼下에 내려보는 軍事上의 要地로서 蘇聯이 이것을 二日以來占據하고 잇던것으로 現地에 死體六을 遺棄하고 잇는 點으로 보아 今回의事件이 今히蘇聯側의 計畫的行爲인것도 明白하다

附近農民은平靜

【琿春五日發同盟】琿春에서 日蘇兩軍衝突事件이 發生하엿스나 張鼓峰事件當時의 訓練과 皇軍의絕對信賴로 附近住民은 平常과變함업시 生業에 從事하고 農民은 通常대로 農耕에 힘쓰고 잇서 平穩하다

依然對峙態勢

我方은敵을嚴重監視

【羅南에서 本社特派員吳快一發電】지난三日午後突然發生한長嶺子事件은 때마침西部國境에 노몬한事件이잇슨直後인 만큼非常히 注目을끌고잇던 發生된지三日째인五日午前中까지의 經過에 關하여 當地에到着된 情報에依하면 四日까지는 相當한戰鬪가展開되엇스나 五日에는 戰鬪는中止된채서로 沈默의對峙를 繼續하고잇슬뿐이다 그리고 該地方은 傾斜가지고 平坦한 丘陵地인만큼 張鼓峰事件當時와 가든 活潑한 戰鬪狀態는 認定치안는다 그리고 現在가라서는 이以上 더擴展되리라고는 보이지안흐나 相對者가 蘇聯이만큼 어떠한意外의 事件이 엇슬지도 모르므로 我○○部隊는 嚴重히 警戒를 繼續하는中이다

參謀總長宮殿下 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五日午前十時四十七分 宮中에御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옵고 御所管事項에關하사奏上 同十一時三十五分 御退出하시엇다

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板垣陸相은 五日午後二時五十分 宮中에 參內 天皇陛下께拜謁하고 所管事項에 關하여 奏上한바 여러가지 御下問에 奉答한後 同三時四十分宮中을退下하엿다

米에도善處를要請

支那軍의第三國利用問題

【上海五日發同盟】支那軍의 第三國權益利用에 關하여서는 駐支英佛에 對하여 覺書를 送付하고 各各善處를 要求한바잇섯는데 五日午後森島事務局長의 이름으로써 駐支米國大使 존슨氏에 對하여 覺書를 送付하여 支那人의米國國旗濫用及 米國權益利用에依한 從來의 實例及 實際行爲의 如何를 說明하고 此等의 擾亂를 未然에 防止하기爲하여 米國側에 잇서서 有效한對策을講究할것으로 要請하엿다

長沙進攻을念慮 敵、浙贛線七百里破壞

【南昌五日發同盟】我航空隊의 偵察에依하면 日本軍長沙進攻이라는 自己推測에 놀란敵은 浙贛線西部의 豐城(南昌南方二百五十里)[illegible]城(長沙東南四百里)間 七百里의 線路를 完全히破壞하엿다 이에 依하여 浙贛線은 全혀支那側暴虐으로 이름뿐으로되엇다

撫州其他를爆擊

【上海五日發同盟】陸軍報道部午後四時發表

一、中支方面에 잇서서昨四日海軍航空隊의 精銳部隊는 撫州市(江西省)를攻擊敵軍司令部及其他의 軍事施設多數를 爆碎하엿다 또한浙贛線攻擊에 向한 一部隊는敵의 反擊을 制壓하면서 萍鄕、貴溪及 廣信附近에서 運行中의 列車를 爆擊한 外에 河口鎭附近에 群集한 軍用自動車를 銃擊하여 어것을 潰走시켯다

二、南支方面에 잇서서의 戰況은 如左하다

一、二日三日의 兩日에 亘하야 水上艦艇의 一部는 海豐縣及 潿洲島其他의 敵陣地를 砲擊하여 大損害를 준 外에 다시 泉州、京鑑地附近의 敵陣地及 兵舍同地北岸 崇武附近의 敵據點을 砲擊이것을 粉碎하엿다

二、海南島에 잇서서 海軍航空隊○○機는 再昨三日 感恩을 急襲하여 主要軍事施設數棟을 爆碎 多大한 戰果를 거두엇다

金利水準引下難關

朝鮮金融團의 結成으로 預金金利의 水準化는 全朝鮮的으로 實現을보게되엇는데 朝鮮內金利의 水準은 周知와如히 甲乙銀이모두 內地金利와사이에 相當한 懸隔이잇서 當面의急務인公債消化上에도 다시一段水準引下가 必要하다하여 第二次工作이 要求되는 段階에와잇다 그러나 實際問題로서 金利水準을 어느點에 둘것인지는 相當히 問題되는것으로 金融團及 銀行側에서도 그點에對하여 意見의一致를 보지못하엿다 다시甲乙銀파의 開差도 問題인바 이것도 亦是乙銀側에 斷乎한主張이 잇는모양이다 따라서 金利의 水準引下問題는 容易치안흔 難關을 包藏하고잇는 모양으로 總督府의 能動的態度以外에 問題의 解決은 至難일것이라한다

市況(五日)

◆橫濱生糸後引◆

當限 三三〇〇 先限 二六〇〇

005143

辭令

(新義州營林署長)總督府營林署技師 木谷 重榮
任總督府技師(三等) 命農林局勤務

(咸興營林署長)同 中塚 秀雄
任總督府技師(七等) 命農林局勤務

(農林局林業課)總督府技師 若宮敬次郎
任總督府林業試驗場技師兼總督府技師(五等) 命農林局勤務

林業試驗場技師兼總督府技師 松岡 修三
任營林署技師(三等) 命新義州營林署長

(寧邊署長)營林署技手 速水 政善
任營林署技師(七等) 命咸興營林署長

(內務局)總督府屬 松井吉之介
任總督府理事官(七等) 命內務局勤務

(中江鎭署長)營林署技手 山下 四郎
任總督府技師(七等) 命農業局勤務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浦田 미요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七等) 補釜山公立高等女學校敎諭

(會計課)總督府技師 田 慶一
依願免本官

滿支產業視察通信 ❶

北朝鮮景氣

李相昊

滿洲、北支、金鑛、巾着網等은 朝鮮의 時俗人(?)들의 憧憬해 마지안는 流行的標的이요 內鮮一體、鮮滿一如、五族協和、新東亞建設等等句는 新時代亞細亞의 政治標軸이 緊切히 要求하고잇는 指標語를兼한 標語가될것입니다.

나는이번 本社主催 滿洲北支產業視察團을 引率하는거룩에 前示한標的과標語의 交錯的 滿蓄을 거처나가는 機會에 亦是同一한 標的과標語가 無秩序하게 또 幻影的으로 混濁되어잇는 내腦裡에 斷片的으로 뛰여드는印象을 系列업시 摘記하야 이旅行의 報告를삼고저합니다.

○……○

京城驛을 出發하기는 五月卅日夜十時 寢臺車를車中에서 쉬고나보니 汽車는 咸興平野를달리고잇섯습니다. 더率直하게 말하면 汽車는 所謂 北朝鮮景氣속으로 달리고잇섯다는것이 한결더 適切한表現일것습니다. 昨年에 못보든工場과 前世에없던 大煙突이 北朝鮮의새〃에쪽크〃를 雨後竹筍가치 돗고잇섯습니다.

忽然이工業은 時代의 寵辱을 享受할特權을 가진 產業이지라 物資統制를 비우스면서 權力的 印象을 주고잇섯습니다.

○……○

車窓바그로는 昨年水災의慘痕이 아직도 快癒치 못한채로復舊를 呼訴하고잇섯습니다. 北朝鮮景氣와는 緣도끈도업서보이는 農夫들이 그들의살길을 찾가게 孜孜히 허무러진 논자리를 復舊하기에 땀을 흘리는樣이 뵘니다.

○……○

해질무렵에 淸津에 다엇습니다. 日鐵工場이 二百萬坪 大日本紡績이 四十萬坪 三菱製鐵이 三十萬坪 十四個油脂工場을 안고잇는大淸津 橋頭가森立한淸津 本港 日鐵、三菱專用의 西港等을 淸津이자랑하는 體面目錄입니다.

生[illegible]어리를 漁港岸壁에 다인後 四十分만이면 同一岸壁에다인 油搾船에 魚油로 어시려내는 超高速度工程으로 年產三千五百萬圓 十四個油脂工場中에 다오하나인 朝鮮人經營 工場으로 구경하고보니 因緣업는 大設備、大數字서화에 憂鬱해진 머리가 한층기安想을 엇게되엇습니다.

밤에는○……○淸津의 代表的實業家 四十餘名이 懇談會를兼하야 越分한 歡迎會를 열어주서서 感謝했습니다 當席에서 나제본 十四個油脂工場中에 唯一의 朝鮮人經營工場主 辟氏를만나 그의 努力과 얼굴을 아울러 헤번더처다보아 드렷습니다.

어러케 풋서운한판에 우리도 한목끼이자는 慾心과野望이 불꺼듯 납니다 끼이도록해야할것이요 끼이야만할것입니다.

廣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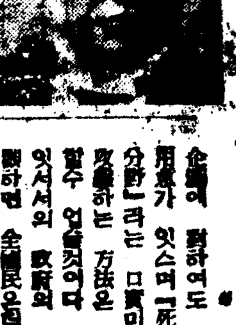
胃腸と健康
自力健康器
用不要도 藥도
美本 『自力健康法』 進呈
東京神田・國民保健振興會
全國一流藥店에 有함

大藏省서今年度 豫算實効調査

【東京電話同盟】新物動計畫實施에 伴하야 今年度豫算實効의 調査에 對하여는 目下大藏省에서 [illegible] 關하여 調査中인데 今月中旬에 大藏省에 右調査를 報告하기로되어잇는바 大藏省에서는 不急事業의 十五年度繰越方策을 決定할때까지 [illegible] 正確한 [illegible] 資材物資의 [illegible] 代用品使 [illegible] 一層 [illegible] 十五年度 [illegible] 따라서 今年度豫算에對하여서는 [illegible] 十五年度에 [illegible] 企業 [illegible] 進行하기로되어잇다

英佛蘇三國交涉 成功될希望이增大

달佛首相의注目되는演說



【巴里四日發同盟】달라디에佛首相은 四日午後 急進社會黨執行委員會의 會合에臨하여 一場의 演說을試하고 內治、外交의 兩分野에서의 現政府의 業績을 [illegible]하엿다 달라디에首相은 最近의 英佛蘇三國交涉成功의 希望이 增大된旨를 述하는同時에 [illegible] 企圖에 對하여도 斷乎對抗의 用意가 잇스며 「死活的 [illegible]分野」라는 口實이며 [illegible] 改善하는 方法은 決코 [illegible] 할수 업슬것이다 內政分野에 잇서서의 政府의 業績을 [illegible]하면 全國民으로부터 一致의 [illegible]를 要望하고잇스며 生產增加의 實을 擧하여 [illegible]도 그影響으로 [illegible] 行의 [illegible]增加及 [illegible] 貿易도 [illegible]서 나타난結果 [illegible] 改善을 示하고잇다 至今政府는 [illegible]의 見地에서 出產率增加를 目的으로 하는法律을 實施할 意向이다

(寫眞은 달라디에佛首相)

阿片吸引禁止 新法令을布告

【香港五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重慶市政府는 阿片吸引禁止에 關한 新法令을 布告하엿다 右結果 全重慶市民은 來七月一日以降 一切의 阿片吸引을 禁止當하고 從來阿片吸引及 阿片許可證을가진者도全部 禁止되게되엇다

英、九龍에大規模 陸軍兵營을建築

【香港五日發同盟】英國側紙의 報道에依하면 香港政廳當局은 九龍에大規模의兵營을 建築하기로되어 이미 同島의建築業者에게 入札을 시켯는데 英本國의 陸軍省에 請訓을提示後 今年末頃에 着手할豫定이다

本會의 獨學으로 滿鮮官界에 進出

朝鮮普文과 滿洲文官考試

朝鮮及滿洲國에서는 年年普通試驗을、또後者에서는 文官考試試驗을施行하고잇지마는 此等試驗準備用으로서는 本會講義錄보다 優秀한것이 업스며 現在朝鮮普文에는 年年全合格者의 七・八割은 本會出身者로 占領하는 情勢이다。

普通文官講義

半島普文은 每年八月 全鮮五個所에서 施行

朝鮮總督府에서의 普通試驗은 每年八月、京城、大邱、全州、平壤、咸興의 五個所에서 施行되므로 全鮮各地는 勿論 內地나 滿洲에서도 受驗할수잇스며 그리고 筆記에 合格하고 口述에 落第한 때는 翌年은 口述만 치르면되므로 日滿支를通하야 가장 有利한 試驗으로 되엿다。

夏期會員募集 資格은 共通

內鮮滿支官吏交流의 結果、半島普文과 滿洲考試合格者는 內鮮滿支어디서나 判任官일수잇다

日滿官廳에 會友 齊滿

本會會友는 小學校만卒業한것만으로 日滿의 官廳에奉職、一官廳에 五名十名씩 集團的으로 進出、普文合格、日滿의官廳에 勢力을 扶植하고 잇다

此際 內容見本請求者에는 講義內容見本 文官受驗界 二點 進呈

此際本新聞紙名記入見本請求者에게는 內容見本發送한 數日後『文官受驗界』라는 受驗新聞을 一部씩 贈呈합니다。

東京市澁谷區明治神宮表參道(電話青山六四六五番)
日本遞信大學法制學會

國民中學講義錄

●定評 ある! 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大投賣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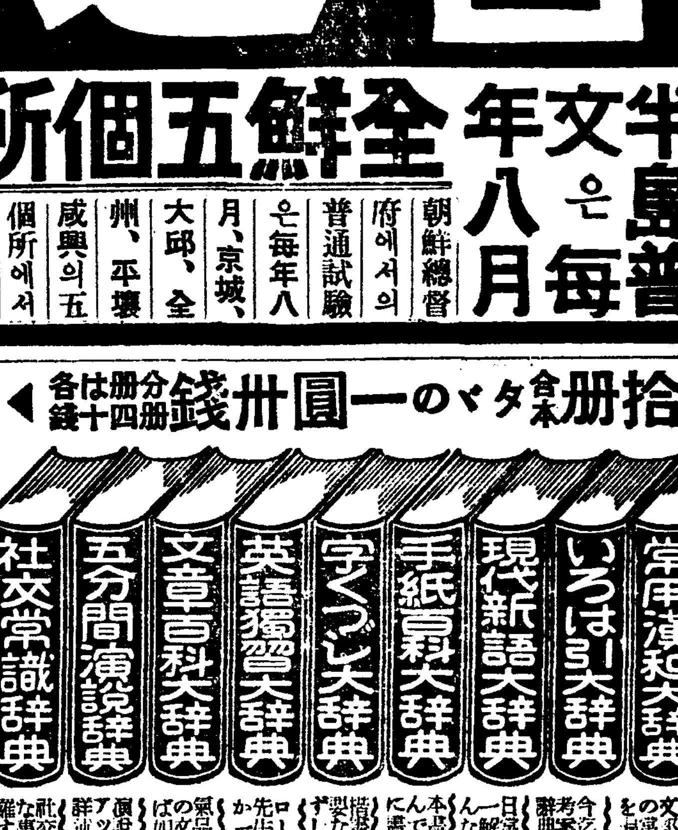
定價三圓八十錢を 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千五百頁大冊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局區內西口 合資會社 國民書院 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辭典拾冊 合本 タダの一圓卅錢 各は十分冊四

緊急處分大投賣斷行



特別景品 無代進呈 橫線日記

돈버리王 一夏의 利益五千圓

高級 アイスケーキ 機械

製氷・冷藏 牛乳處理用

型錄進呈

冷凍機械 約販賣開始

朝鮮冷凍工業所

歸帆 ―어제저녁 한강에서―

變更된街路網計畫

府會通過

新設線9、變更線32、廢止線11

오는의 경성부회를 통과한 경성시가지 계획가로중 일부변경안의 내용을보면 신설이 아홉노선, 변경이 삼십이노선 폐지하는것이 십일노선으로 결국시가지계획가로는 당초의 이백이십팔노선이 이백이십육노선이 되는 셈이다 변경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新設·變更·廢止路線

▲新設路線(九線)

▲新設町－漢江通北端(幅二五米)▲統監府－府永登浦出張所前(二五米)▲南大門驛前－中林町(二〇米)▲和泉町終點(二六米)▲蓬萊町四丁目－孔德町(二六米)▲元町二丁目－老姑山驛前(二〇米)▲永登浦出張所前－永登浦町(一五米)▲旭町－黃金町三丁目(一五米)▲朝鮮神宮아래에 이를 도로(二五米)▲揚坪町－杏川町(一五米)▲孔德町－機北町(一五米杏村町經由)

二、計畫變更路線

(三十五路線中主要한變更線)▲永登浦町廣場－揚坪町(三〇米當初는終點이道林町廣場)▲蓬萊町二丁目－京町(二五米當初는終點이通林町)▲漢江通－龍江町(二〇米當初는終點이漢江路)▲元町三丁目은麻浦町經過地한)▲新村驛前廣場－麻浦町(二〇米當初는終點이延禧町)▲揚坪町(一五米－當初는終點이望山町)▲三坂通－麻浦(?)倉庫前支

三、廢止路線(十一線)

▲元町三丁目大興町(二五米)▲永登浦出張所前－永登浦驛前(一五米)▲三坂通鮮銀舍宅後－三坂通(二〇米當初終點이龍江町)▲岡崎町－三坂通(一五米)▲安岩町(一五米)▲漢江通(二〇米)▲道林町廣場－孔德町(一五米)▲大興町－老姑山町(二〇米)▲新孔德町－孔德町(二〇米)▲揚坪町－(一五米)▲計畫(?)

滿浦、梅輯兩線連結後

呑吐終端港이問題

南浦港은未備、海州港도難色

이미개통중인 조선의 만포선(滿浦線)철도와 만주측매즙선(梅輯線)철도와의 연락은오는시월 매즙선철도의 완전개통에 따라비로소 되게되어서 만주 동변도(東邊道)일대의 물산을실어 드리고 조선의물산을 실어보내는 중요한 사명을달성하게 될터이다 이만포선의 화물을 푸러내리고 실을종단항은 진남포(鎭南浦)로 작정되어있는터이나 진남포는 항구로서 여러가지 조건이부족한 점이만하서 철도당국에서는 당면 문제로방금 만흔 걱정을 하고있다

현재 진남포는 겨울이면 어름이 잇서서배가 잘드나들수업는터이고 또다른때에라도 항구의 물기괴가 얏고 진흙이 만히 차여서 배가드나들기 불편하야 면이다 이제부터 진남포의 항구를 매축 한다드래도 갑작이 될일이아니고 또한 그부근 다른곳에 항구될만한 적당한곳을 구하여보아도 대체로 서해안일대는 해빈이 멀리 여른곳이 만하서 적당한곳이 업다

그래서 결국 종점지는 해주(海州港)을 그후보지로 등장시켜보게 되엇스나 이곳도현재 ×서철도회사의 황해선(黃海線)이 좁은궤도(狹軌)이므로 이것을 넓은궤도(廣軌)로 고치기전에는 화차를 바로 운전하여 갈수 업는터이어서 역시 당장에 소용될수는 업는형편이다 그러나 철도국의 방침에따라 어서 선을 빨리 매수하야 넓은궤도로 고치도록 하는수밧게 다른 조흔도리가 업는것이라한다

土木疑獄擴大

遊興에公金消費만萬八千餘圓에達하야

勞賃支拂못한것이發覺端緒

방금 서대문경찰서에서 취조중인 총독부내무국 토목과(內務局土木課) 경성출장소기수 송본창(松本昌=가명)의 공금소비사건은 취조에따라 확대하여 수일전 그사건관련의 모모도 명도 유치하엿다 송본은 그출장소 일산(一山)김포(金浦)의 한강제방 공사수입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소비한것이 현재 판명된 것만으로도 일만팔천원에 달하여 총후관리로서 진상해야할것임에 불구하고 부내 욱정(旭町)신정(新町)방면에서 유흥에빠저잇스든것이데 범행이 발각되기는 인부들의 임금을 지불하지못한데서 꼬리가 잡힌것이다

미용원생도 이갑숙(李甲淑)(一九)―가명―을 검거취조중인데 그는 최근 전기미용학원생도들의 시계네개를 훔처다가 팔아먹은 것이 탄로되엇다

손버릇사나운生徒

오일 본정서에서는 욱정(旭町)일정목일번지 전중(田中)

조흔도리가 업는것이라한다

京城工科에不祥事件

선생끼리의 세력다툼이 생도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양파로나누어진 생도들이 강당안에서대치하여 유혈극을 연출한 괴유의 불상사가 잇다 삼일오후영시반경 시내경운정(慶雲町)달십번지 경성공과(京城工科)학원 강당에서는 기계과(機械科)와무선과(無電科)학생의 편싸움이일어나서 마침내 무전과 김모(金某)(二)는 빈사의중상을입고 권영우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종로서고등계에서 급보를밧고 서원이 달려가서 주모자로지정되는 유모(柳某)외십여명의 생도를 검거하여다가취조중이다 사건의발단은 교무주임김모(金某)와 서무주임송모(宋某)의세력다툼으로 선생끼리 알륵가계속하던나머지 이불순한감정이 생도들에게 파급되어 생도들이양파로나누어져서 그와가치 유혈의 격투극을 학교강당안에서 연출한것이다

중에잇 그는 금년정월 십사일 부터 반도호텔에취직하자 유숙하는 손님의 여른외에투명크등수십여건을 닥치는대로 절취하여모 두유흥에 소비해버린것이 판명되어 여죄를 주중이다

경찰서에대간 半島호텔뽀이

손님의 물건을 닥치는대로 훔쳐 치는 호텔뽀이―오일본정서에서는 반도(半島)호텔뽀이 원구정욱(原口政雄)(二)을 검거취조

神域에勤勞奉仕

昨日뜻기픈地鎭祭

第一陣은丁子屋部隊

삼엄한 신역(神域)에 편민정생 청년단이 정렬일치하여 엄히 단정한 근로봉사를하는 조선신궁봉사 근로봉사(奉仕)를 개시코 편민정생 단원봉사하는 신궁위원의 봉사(奉仕)의 제일진을 마련 정자옥(丁子屋)청년단 단장 소림원규(小林源之)씨이하 약이백명참렬하에 엄숙히 집행하엿다 제식이끗나자 근로봉사가 착수되어 지진제(地鎭祭)는 사일오전 화장공사를마리하여 부터 그공사장에서 길전궁사(吉田宮司)

신역에 서울까지에는 휘장공사를마 침예정이다

本社主催滿支産業視察團動靜

新京哈市視察코

今日은奉天으로

旱天고대喜雨로農耕同胞들의기픈情景

【哈爾濱에서特派員金曉炳發電】만주국의 수도신경(新京)에서 아침아홉시부터서 하로밤을지내우리일행은 아침아홉시부터 하로밤을지내시찰을 나섯다 먼저 신사에 참배하고 국무원을 요배한다음대동가대마로大同大街)와 남령(南嶺)를 지나중앙로(興安路)를 차지 정중령려의 명복을 빌엇다 끗인는 농작물에 피해가만는 가뭄이 있엇는데 우리일행이 신경을 떠나는 일대에 비가오지아니하야 사실에 몹시도 우리조선농포가만히 만주국 독히우리조선농포가만히 살고있 하야 보통으로 달리엇다 요즘 경종 바라보면서 소만국경방향 어다 눈에 달리진 철도연선의풍 자에 몽실실과 윈기잇게 달리 을 뒤로하고 하르빈으로가는길 흔 각사업을 재촉하는 심경 에 동양제일을 자랑하는 수만 나면서부터 비가내리기 시작하 야 못업는 평야각처에서는 손 을 들고 기뻐하는 동포를 여기 저기서 보게되엇다 오후여덟시 사십오분 하르빈보사 지국원과 각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환영 을 바드며 하르빈역에 내리엇다 일행은 내소남호텔에 짐을 풀 엇다 교통기관의 운전을 빌어 하야 시가지관광을 차지 하고 잇는 백계(白系)노서아 사람

의 만흔것은 물론 건물그런것 들이 모두 노서아를 보는듯하 엿스나 더구나 하르빈의 밤 경치는 오래동안의 여행에서 흥 히 색다른 기억을 남길수있는 기회엿다 오일오후 한시부터 국 경지대로서의 각박하게 된 ... 게 모든기관을 견학 네시간 여에 스으로 시찰하고 다시지부 러 그곳유지 백여명이 공회 당에서 열어준 하르빈을 말하 는회에 참석하야 농업, 공업, 교육, 상공업문제등을 드럿다 만주국 전국의 상업이 지배되기 때문에 아프로 만주진출을 신 중히 하여야할 형상이 라하엿다 우리일행이 하르빈에서 더욱 잇게 유쾌하게 봉천(奉天)으로 떠나게될터이다

今日 晴曇不定

五月中傳染病極盛

昨年同期보다갑절이激增!

경성은 전염병도시로서의 판록(!)을여전히갖고잇는것은 한심한일이다 지난오월한달동안부 내에서생긴 환자수는 이백오십 일명으로 작년오월보다는 일백 이십칠명이늘어 단번에 갑절로 격증하엿다 그중가장만흔것이발 진티프스로서 구십일명이고 다 음는 "지푸테리아"의 칠십륙명 경질보사 삼십일명 적리삼십삼명 의순서이다 작년오월보다 격증 한병은 발진티프스가 팔십륙명 이늘어 실로배의 증가률이고 지 푸테리아도 이십팔명이 늘엇고 준 것은 성홍렬뿐이다 그중조선인 사망으로되어이다

◇◇◇◇ 闕席判決에對한 高等法院新判例 ◇◇◇◇

일심에서 궐석판결로 회석된 게생이 아심을거처 고등법원까 지와다가 이게생이 일심판결이 결에서 어미회석된것이 판명되 어 오일고등법원 도변(渡邊)재 판장으로부터 고양산에(?)을 판결에대한 고장신립을 한사건은 그신립을한후 최초 의 구두변론기일 또는 연기 와 변경이된 기일에 출두치 안흐면 고장을 취하한것으로도 본다 는 이유하에 피고가 궐석판결로 패소하고 고장시립으로 일심에 서 승소하엿스며 이심에서패소 한사건에대하여 복심판결을 파훼 하고일심판결을 취소한다는 관결 을 내리는 동시에 이것을 관례로 채택하엿다 사건내용은 함남정 평군주산면(定平郡文山面)한재국 (韓載國)외한명이 망산면거주자 면(新上面)에사는원수현(元守鉉) 을상대로박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일으켜 동년정월이일에궐 석판결로 피고가 패소하엿스며 이어서 피고가 고장신립을한결 과 다시 구두변론을 하게되엇 는데 한번연기하여가지고 결정 된 판결심전에 피고가 출두 하지안허 법리로보면 이때에궐 석판결이 확정된것이다 그런데 그후 다시공판을계속하여 일심 에서 피고가이기고 이심에서는 지고 이심에서는

咸北"에"怪天候"

어름이얼고눈까지와

【咸北支社特電】최근두수일가량이나 함북일대의 기후는 아주 변조로써서 거의 매일가치 비가와다 머저다하여 장마에들어 갈듯하나 밤이되면 기온은갑자기내려가 국경일대는 영도(零度)에 가까워저서 때로는 어름까지 어는형편이어든데 작사일은 한층 심하여 여름이란말분 이고기후는 겨울로 되돌아가는 듯하엿다 온흥(이영)아침에 보니판연산(冠帽連山)은 흰눈으로하야케 단장한재 수성평야(輸城平野)는 를내려다보고잇는기이한경치이다 유월에눈이 내리기는 수년래 없엇던기현상이라고한다

奉恩寺重建

工事費八萬圓으로

大雄殿等을新築

망수군언주면(廣州郡彦州面)봉은사(奉恩寺)가 지난 사월이십 구일 참배와를사람의 담배불의 불로해서 대웅전일곽재가 전소되어서 대웅전불상(佛像)과 대장경(大藏經)등이 겨우화재를 면하엿스나 손해액은 이십이만 원에 달하엿는데 절에서는 본말 주지총회를 개최하고 그선후 책을 강구한결과 복구건물기성 회를 조직하여 사찰의 복구를 계획하기로되엇다 건축공사비는 일기와 이기로 나누어 가지고 제일기는 만삼개년으로하여 팔만원의 경비로써 먼저 대웅 전과좌우문방을건축하기로되엇다

曆 ▲六月六日(火曜)陰四月十九日▲甲戌 ▲日出午前五時十三分 ▲日南中 午後零時三十二分▲日入午後七時五十一分▲晝間 十四時三十八分 ▲月出 午後十時四十七分▲月入午前八時四十九分▲滿潮(仁川)午前八時四十七分 午後七時五十分

災民에게溫情

집일흔이爲해주려거며救濟

경기도 광주군희례면송리(廣州郡檜村面松里)임창현(林昌鉉)의집은 세호는 지난오월구일 불이나서 전부태워버려 네호의 식여명의 가족이갈곳이업서 고생하고잇슴을 가련히 생각한 부락민은 이지막 현금이백오십 원과 백미여덟말 조여덟말을 거출하야 이재가족에게보내어 여러 사람을 감복시키고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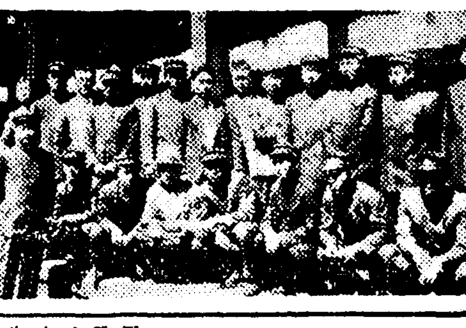
醉中의水泳은禁物

阿峴町評議員溺死

경성부아현정(阿峴町)제삼구 정회평의원 재기(蔡?)씨 는 사일오후두시 수색(水色)를 내 한강에서 술먹고 헤엄거러 들어갓다가 익사하엿다

普專蹴球出征

普專蹴球部一行은 全日本 選手權大會에 出場코저 五日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寺尾教授引率下에 渡東하엿는데 同校教職員들의 盛大한 餞送이잇섯다



早慶野球戰에

早大軍快捷

春期리그早大優勝

【東京電話同盟】早大對慶應野球 決勝戰은 兩軍一勝一敗의 뒤를 이어 五日午後一時半부터 神宮 球場에서 早大軍先攻으로 開始 한바 結局五對四로 早大가快捷 하야 勝點八로서 春期리―그戰 에 覇權을 獲得하엿다

慶應 0 2 0 0 0 1 1 0 0 ―4
早大 0 0 3 0 0 0 1 1 0 ―5

수요운동

◆庭球＝京城私立中等學校庭球리―그第九日 大東對徽文、協實對大東、培材對徽新 午後四時杜洞町中央中學코―트(觀覽無料)

◆軟式野球＝京城銀行團軟式野球春期리―그戰第九日 朝信對商銀 午後五時 奬忠壇球場(觀覽無料)

글세 말만사 꾸해 소용이무 ○ 다고、 귀는 내려두른 개하고 집세등 집을 만히 짓 ○ 어요、 망원스다 장파하리다。 ○ 가물은 심하데 비는 당분간 안오리라니 야단아닌가、 ○ 날이 밝아서 가슴이 호리니 요건 모는 경우라…? ○ 지주와 곡상이 쌀을 안팔아 자꾸 비싸진다나、 ○ 거지도 힘이세면 무섭다는데 이건 부자가 힘까지 세니 견 딜수잇나。

中等庭球聯盟戰第八日

中央、徽新各勝

今日은中央코―트에서

京城私立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 第七回 京城中等學校庭球리―그戰 第八日의 中央對徽文、徽新對中央、徽文對徽新戰은 五日 午後四時二十分부터 貞洞町培材 코―트에서 擧行한바 別項戰績 과가티 中央、徽新이 各勝하엿다 (當日審判…趙寅燮、辛永默、諸炳俊(主)吳昌根、田溶國(副)柳寅熙、洪炳璿、金鵬洙(線)

【中央】勝 9…5【徽文】
○ 李壽九 4…0 徐文洙 ×
○ 朴鍾麟 ? 朴性洙
× 金銀世 4…1 李鍾植
× 宋來五 4 李?
…

【徽新】5…8勝【中央】
× 金昌河 1…4 張河瑞 ○
崔洪圭 孫永斗

【徽文】6…8勝【徽新】
× 金勝培 0…4 李炳鎭 ○
× 宋炳浩 1…4 朴鍾九 ○
× 李德裕 4…0 金鍾世 ○
○ 金商潤 4…0 宋學五
姜文尙 崔洪圭
○ 吉昌植 1…4 金昌河 ×
× 李? 1…4 宋來? ○
× 徐文洙 1…4 姜文尙
○ 朴性洙 4…0 金炳培
孫永斗 張河瑞

延專主催·本社後援 中等籠球大會

申請은六月九日限

延禧專門學校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는 來十六、七兩日間 新村町 延專코―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參加希望校는 來九日까지 每校一團體에 限하여 監督者一人、選手十人以內를 記入하여主催側으로 申請하기를바란다하며 抽籤日時는 十二日正午에 行하게되엇다 그리고 再昨年度(昨年中止)優勝校는 中東이 決勝戰에 大東商業을 四十一對二十二로 이겨優勝하엿다

保線區員이 醉中에轢死

사일밤열시 경기도 양평군양서면 양수리 (揚州郡西面楊水里)(?)...

軍需産業으로轉換者는 電氣熔接技術을!!

高等電氣熔接學校

唯一의 比類업는 本校의 實力…

廣告

이런症勢의病은

潛伏梅毒이다!

自宅에서손쉽게根治하는法

血管을通하야 全身에퍼진다!

內臟 子孫 世上 後世

꼭꼭根治시키는 아지아丸의偉効!

注文法

梅毒과體毒의根治藥

主治効能

價格 十日分二圓 十二日分三圓 三十日分五圓 七十日分十圓 五個月分二十圓 家庭用二十圓

發賣元 和田合名會社 東京市淺草區馬道三ノ一二 振替口座東京四五四五番

아지아丸

劇團豪華船公演 六月三日밤부터 桃花劇場 電話 一三三三

東洋劇場

新富座 電本 五六七七

第一劇場

東京少女歌劇團 大公演

大劇

中部版

京城의面目을一新할 地域制等四案可決

"市計"委員會를거처七月中에公告•實施

첫번府會에廿名의大量缺席

경성부회제삼일은 전날에계속하여 오일오후 두시삼십분부터 부회의실에서 개회되엇다 이를 동안에 벌써부회가 실증이낫슴인지 출석자는겨우사십구명 이십명의대량결석이다 그중부득이한사고로 계출하고 결석한의원은 단다섯명이요 남어지열다섯명은 계출도하지안코 결석한것은 부정진적에엿심히 힘을쓰겟다는 공약을하지 두주일도채못되는이때이만큼 그들의결석은더욱눈에띄엇다 개회벽두에 이등동작(伊藤東作)의원으로부터 이점을지적하여 동료의주의를 환기한것은적절한발언이엇다

총독부자문안의 제일독회를계속하엿는데 오월까지 답신하라는기한이 부터잇기때문에 질문과답변은 모두간단히 하기로하고

◀芮興洙議員 공업지역이 너무나 적지안흔가

◀良鄕工營部長 공업지역은 전부역의 오분에해당하는데 이밧게언제든지 공업지역으로될수잇는 이할이분의 면적을가지고잇는 미지정지역(未指定地域)이 잇스니 넉넉하다고밋는다

◀梁在昶議員 상업지역을 종로통까지한것은 웬일이나 종로부아메서 안국정을거처 창경원까지는 생각하엿는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부지에대한 건축면적비률은 어떠케되어잇는가

◀良鄕工營部長 현재상태로는 그방면으로 확장할필요를 인정치안는다 건축제한 기타여러가지조건이 가장심한 주거지역을 만이남것다가 필요에따라 제한을 조금씩 완화하여 상업지역으로 만들수도 잇다 건축면적은 상업지역은 팔할 주거지역은 육할까지할수잇다

◀崔白洵議員 공업용지는 멀갑시 더비싸지기전에 두는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사달라고하는 사람이잇스면 살수비가잇는가

◀工營部長 당국에서는 그와가치생각하고잇다 지금당장산다는것은 예산관계가잇스니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다

세시이십분 잠시휴게하고 동삼십분부터 재개하자

◀韓相龍議員 공원용지는 거저수용한다는 불안이상당히잇는 모양인데 오해를일소할필요가잇다 공원계획은 참으로조흔계획이나 이때문에 집이만히헐리면 주택난에박차를가하는 결과가된다 그대책이잇는가? 상업지역을 종로에북안국정통까지 확장하는것이 타당치안흔가 상업지역안에 주택지대가잇는것은 어찌되나

◀工營部長 공원용지는 구획정리안에서 공공용지로내놋는 것에는 전부시까로사는것이다 주택난대책은 따로연구중이다 종로통은 길에면한양쪽은 모두상업지역에들어잇스므로 이것으로충분하다 상업지역안에잇는 주택지대는 장래도시계획진지대의 구획정리할때에 [illegible]

◀曹秉相議員 가로방면계획안에조선신궁아래에 건립을 뚫르는것이잇는데 이것은 신역의존엄을 모독하는것이 아닌가 또한 만히돌이고 실지효과가 적은길을 만드는것은 생각할 문제이다

공영부장의 답변이끗나자 삼압마치고 나머지독회는 서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자 대다수가 찬성하여 원안대로 무수정 가결하엿다 양재창의원(梁在昶)이 안국정일대를 상업지역에 편입할 의견을 가지고 이의를 말하엿스나 아무효과도업섯다 이로써 장차경성의면모를일변할 지역제를 비롯한 네가지자문안은 부회의답신을어더스므로 총독부에 회부되어서가지거의원회에 다시자문하여 원안대로가결될 다른 고시될것이라 한다

可決된四案

一、京城市街地計劃區域中一部變更과 同土地區劃整理施行區域의件

二、京城市街地計劃風致地區決定의件

三、京城市街地計劃公園決定의件

四、京城市街地計劃地域指定의件

開店初日부터 國民登錄閑散

【仁川】지난일일부터 인천부에서도 사회과에서 국민등록을 개시하엿는데 민중들은 [illegible] 이나 신청자가 [illegible] 가 기인하여 [illegible] 부사회과에서 기일안에 명확히하여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仁川府勢振興會

七日役員會開催

【仁川】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오는七일오후三시부터 부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케되엇는데 그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갓다

報告事項

一、昭和十三年度會計決算及事務報告의件

一、定期總會의日程及附議事項에關한件

仁川近海에서 새우漁獲激增

【仁川】인천근해의 최근 [illegible]

觀光仁川에化粧

鐵道沿線을美化

仁川府와署의協力으로

【仁川】인천부에서는 [illegible] 하도록하여 [illegible] 라한다

幹線道路의進工따라 激增하는土幕民들

發展仁川에深刻한住宅難

【仁川】도시계획령에따르는 시가지구획정리가 실시되어 [illegible]

港都仁川에서 寫眞撮影을禁止

憲兵隊에서積極的으로

【仁川】교통도시로써 면목이 바뀌엇스므로 금지구역사진과 사진 [illegible]

不正木炭商團束

仁川署에서召喚取調

【仁川】폭리를 취하든 목탄상이 [illegible]

廢品을資源으로 更生會設立準備

仁川府에서成案爲急

【仁川】전시하에잇서서 폐품회수는 [illegible]

金少佐軍事講演

【南原】사변이래 제일선에서 [illegible]

社告

[illegible]

烏致院支局

位置 京畿道烏致院驛前

變更 昭和十四年六月一日

支局長 李容獻

右新任

支局長 曺圭萬

右解任

淸州支局

位置 淸州邑內

變更 昭和十四年五月二十六日

支局長 金鍾大

右新任

支局長 金□根

右解任

鐵嶺支局

位置 鐵嶺市[illegible]

變更 昭和十四年五月三十日

支局長 金炳龍

右新任

支局長 金千鎬

右解任

謹告

雨水販賣所

主任 卞澤相

右新任

外金剛支局

顧問 李鎭顯

記者 金亨俊

右新任

外金剛支局 白

纛島神社를造營

水道敷設問題도討議

纛島面協議員最初의會에서

【纛島】시외 고양군독도면(纛島面)에서는 지난삼일오후한시부터 동면회의실에서 면협의회원과 각리구장(區長)과 유지를 소집하고 면장 이강해(李康海)씨 인사가잇슨후 독도신사건설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어서 소화용수도부설(消火用水道敷設)에대한 필요성에대하여 설명이잇자 만장일치로가결하엿다 그런데 신사건설에는 소요경비 사천여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본면에소개되엿던 독도부호 노근식(盧根植)씨부인 장씨(張氏)여사의 기부금전원을 그비용에충용 남어지 삼천원은 면내유지의기부금으로 충당하게되엇다 그리고 수도부설 문제는 벌써부터 일반주민의 나 고양군수를경유하여 경기도에까지 상신되엇스나 그러나 도당국으로부터 청취기근문제로인하여 보류하게되어잇섯는데 독도 은 작년에 재방공사가끗낫슴에 따라 수원이 원격하게되엇스므로 수도가 더욱필요하게되엇스므로 금번 시설할필요가 잇게되엿기때문에 면당국과 주민까지도 그 필요성을 느껴오든바 이번에면당국에서 출원하여 부설하게된 것이다 그소요경비가 약육만원가량은될터로 그재원은 동독도리에잇는면유지(面有地)약일천평을매각하여 부설하기로되엇스며 지금이라도 회사가잇슬때에는 기계를 부설하기를 소망하기다리고잇다 그러나 이번회합에서는 수도부설을 급히하고저 의원일동은 그진행을 속히하고저 오는 칠월중순경부터 신회원일동이 회합하여 구체적결정에 분투하겟다한다

◇水道敷設委員(無順)

金永濟 武智義正 李承源 李龍相 谷口清三郎 山田竜太郎 河原田甫 申斗泳 盧啟享 朴戶日

비싸진소고기를 지긋지긋더먹는다

五月中牛千五百頭、豚千三百頭

비싸도 서울사람은 고기를잘 집다―오월중에 도살된소는 일천사백팔십이두 도야지일천이백구십팔두 평균하면하루 [illegible] 작년오월보다 [illegible] 이 만이 [illegible] 그갑은 이십이 [illegible] 원이다

春蘭共販開始

金浦郡農會에서

【金浦】김포군농회에서는 오는 [illegible] 신경협부터 어섭섭일까지 팔천동안 춘란공동판매를 개시하기로되엇다는데 그장소는 다음과갓다

一、[illegible]

二、陽谷共同販賣所

"힌고무신"도飢饉

아낙네나드리에受難

開城各고무商에品切狀態

【開城】최근에서에 힌고무신이란잇다 조선여성의 특유한발맵씨를 나타내는것이다 따라 일반가정부녀들에게 가장 총애를 바다오던 이힌고무신이 요즘 개성고무상에는 전부 품절이되어 돈을주고도살수업는 기현상을 보히고잇다 그래서 다수한부녀자들은 금족령이나당한듯 문밧출입을 자유로못하는 형편이라는바 이가치 힌고무신이 품절된원인은 각고무회사가 원료기근과 배급통제때문에 종전과가치 무제한으로 생산치못하는반면에 소비대중은 오히려 증가되고잇는때문이라한다

改選後初邑會

全議員總出席

【平壤】발전도정에잇는 평양읍은 지난유월오전十시정각부터 읍회의실에서 이번에선거에 새로당선된 신읍회의원초대면의회의가 개최되엇다 안좌후 각의원석을 추첨으로결정하고 신사에참배하고 의안에들어가 조흥세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青年團員을動員

中止한工事繼續

金浦公設運動場爲急

【金浦】김포공설운동장정지공사는 농번기를당하여 다수한출역을고려하는동시에 당분간 그공사를중지하게되엇든바 근일 김포에서는 하루라도 속히실현시키고자 군내청년단원을 총출동시켜가지고 다시공사를 계속하게되엇다 그정지공사에만출역된인원이 벌써 팔천여명에달하엿다하며 아아프로도 약이천여명은들어야 정지공사는 완정되리라고한다

溫陽李德永氏 百七十戶代納

【牙山】충남아산군온양면읍내리(牙山郡溫陽面邑內里) 이덕영(李德永)씨는 원래자선심이 풍부하여 공공방면에도 공헌이만헛는데 이번에는 동리세궁민 일백칠십호에대하여 일기호세를 전부대납하엿스므로 일반인사들은 씨의자선심에 대하여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一期戶稅代納

南原崔奇煥氏美擧

面內四百五十名의

【南原】남원군송동면(松東面) [illegible] 최기환(崔奇煥)씨는 해면내의궁민세 四백오십명에게 일기호세를 대납하엿다한다 [illegible] 그리고 감사하는 한편 [illegible]

全南農務課서는 農作被害調査中

【全南支社】전남일대에는 근

明珍錫氏의義擧

金浦各團體에三千圓寄付

【金浦】김포운수주식회사(金浦運輸株式會社)는 어떠한면으로그 경영을 지난삼월일부터 인천부 철도주식회사에 인계하엿바그 회사의사장으로 명진석(明珍錫)씨는 금번김포를 떠나면서 천원을 기부하엿는데 그기부

金浦公立普通學校 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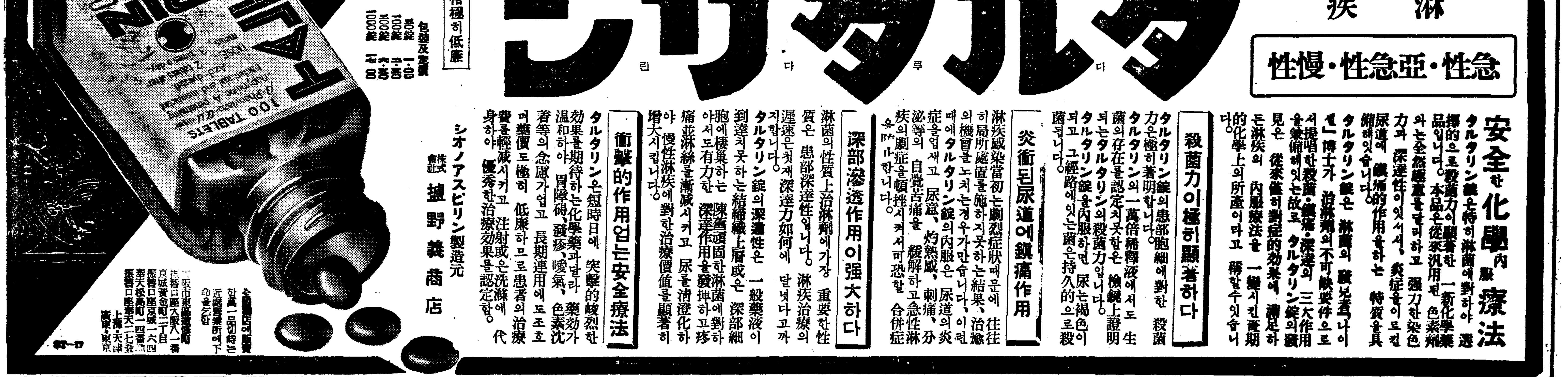
京城府國民... 八百圓

在鄕軍人會 五百圓

金浦消防組 三百圓

金浦邑... 三百圓

... 二百圓



短篇小說

바다로간다 (27)

金南天 作 鄭玄雄 畵

五、靈宴의畵帖(七)

영자의 상반신과 만발한 함박꽃을 너머서 한강을 적엇다 얼면을 넘어 미술판아프로 석조전을 끼고 돌면서, (함박꽃과 석훈 넘어 활짝 핀 때로 핀 송년의 여자) 하고 준호는 생각해 보고 다시 영자를 넘겨 본다.

『우리 기념삼 함께 사진하나 박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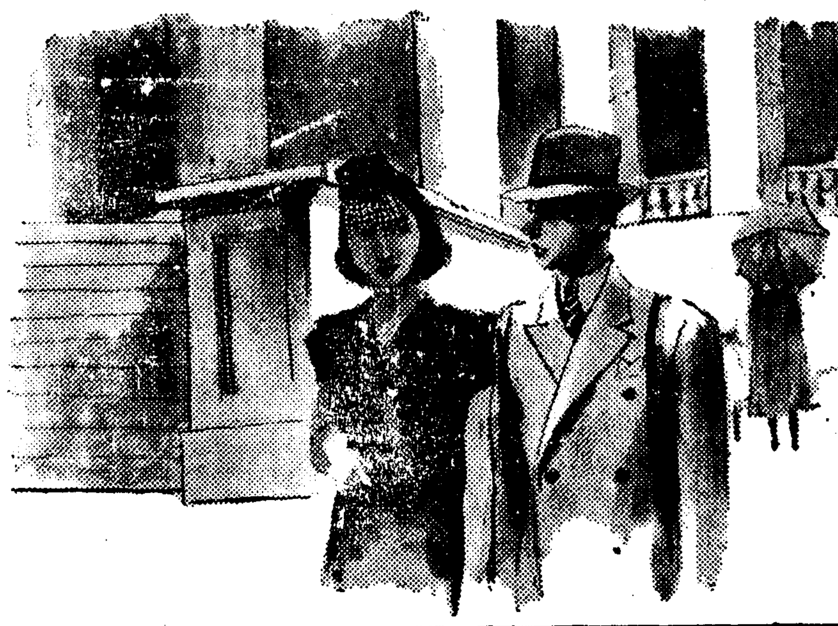
하고 준호가 제안하는말에

『어떠케 막을수 잇서요?』

하고 기쁜나스로 영자가 뭇는다

『다리를가지구 왓스니까, 세워놓구 해보지오.』

미술판아프로 나와다. 미술판을 배경햇스면 조켓스나 역광(逆光)이라고, 석조전을 배경으로 흰 난간에 섯다. 『핀트』를 마추고 기게를 돌려놋코준호는 이내 뛰여와서 영자의 여페와 섯다. 씨근거리는 숨이 제귀에 까지 들린다. 한참만에야 지지─하던 소리끄테 찔꺽하는 것이 도렷하게 들렷다. 그러나 둘이는 그러커고 선



준호는 재미가 나서 색의 낫짝을 철망을 통하여 드려다보며 이야기를 주어 섯긴다. 영자도 색가 말을 바다 들기는것이 신통한듯이 귀를 숨깃하고 열심히 듯고 섯다.

『오도오쌍!』

하니까

『오도오쌍!』

하고 새도 바더서 옮긴다.

『오까아 상!』

하니까 새도

『오까아 상!』

한다. 그래 그대음은

『고이비도』(戀人)

하고 말해 보앗스나 새는 그대로

『오까아상!』

『고이비도』라고 몃번을 되푸리하여도 새는 자꾸만 『오까아상!』 이라고만 대답한다. 그래서, 성난사람처럼,

『빠가!』

하고 욕을 햇더니 새는

『조오단자나이!』

하고 천착히 대답해 버린다.

『그놈의새 오까아상만 알지, 고이비도는 영 모르는군.』

자세대로 한참동안을 그자리에 잇섯다. 사나이의 체취가 영자의 몸을 예민한 한란계처럼 날카롭게만 든다. 사나이는 여자의 분냄새를 맛는지 못 맛는지 알수업다. 그대로 나무토막처럼 텀텀히 아무 반응도 업시 서잇다. 영자는 몸을 실리든가, 그러치 안흐면 스스로 팔을 돌려 사나이의 몸을 돌려 감고 시픈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준호가 먼즘 몸을 움직엿다.

『인제 다아 되엇겟소.』

(싱거운 수작이다. 다아 되지는 벌써 언제인데, 그런 소리를 쭝얼대며 럼뻑 럼뻑 사진기게가 서잇는데루 뛰어가는가!)

그러케 생각은 하면서도 무신경(無神經)을 가장하는 사나이의 굵고 든든한 처사가 마음에 들엇다.

『우리 아이들처럼 원숭이 구경합시다.』

하고 사진기게와 다리를 『삭크』에다 너코 준호는 압장을 선다. 그들은 새가 잇는데서부터 구경한다. 이때에 해가 구름짱으로 기여든다. 쳐다보니 하놀엔 다시 꺼먼 구름이 옹치기고 잇섯다. 바람이 신산하다.

『종래 비가 오구야 말려나,』

하고 구판조(九官鳥)가 잇는데서 둘이는 멋는다.

『오늘은 조용하니까 말을 헐줍니다.』

두어번 얼러대니까 잠깐 구판조의 ...

하고 준호는 영자의 마음가든데 알은채도 안하는것 갓다. (애인이 아니고 어머니라고 ─ 그건 지금 구판조가 꼿까지 고집하던 의견이다.)

『원숭이 그만봅시다.』

하고 영자는 말해 버린다.

『어째? 색가 허는말에 노허섯수? 연인보다는 어머니가 조칭. 점잔쿠, 마음대루 아들의 몸두 만저 줄수잇구, 몸건사두 해 줄수잇구……』

어러케 말하는, 준호의 말에서 영자는 펀뜻 술 취햇슬때의 김준호의 면모를 느낀다. (이것이다… 나의 준호에 대한 매력의 한까닭이 여기잇섯던 것은 아닌가…)

영자는 갑자기 제의 마음의 자세가 흔들리어 동요를 일으키는것을 느끼고 잠시 주춤하니 서잇다.

빗방울이 풋득 풋득 뜻는다

『아, 비가 오나?』

하고 준호가 하늘을 처다 본다. 하늘엔 회색의 구름이 더 괴엇고, 비는 한방울씩 두방울씩 뜻기 시작한다. 그들은 서둘러 대한문을 나섯다.

『택이 머신가요?』

하고 준호가 물어 본다.

『안요. 멀지 안치만, 김선생님 댁에 머시지 안허요? 맥고모루 저즈시겟네.』

그리곤 말을 잡지 끈허다가,

『제숙소로 들르셧다 비 개이시건 가시죠』

아리랑의女王에서 虛榮의길끗난곳

오늘은紅燈아래찌푸린얼굴

轉落스타─二人女 (申一仙)(金蓮實)

그(金蓮實)의終點은異國의酒舍

지위(地位)와 명예(名譽)를엇기위해서 황금(黃金)의 힘이란 언제나 필요하고 또한소중한것이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돈』때문에 지위나 명예는 고사하고 몸까지 영혼까지 저 멍치고 지밟게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잇다. 더구나 인끼에서 인끼로 날아다니는여배우의 세계에서 이런 슬픈역사가 비저나오게 될줄 우리는 수업시 본다. 과거의 우리의 예원(藝苑)에는 불행하게도 참된 지도자(指導者)나 선각자(先覺者)가 적엇다. 그러니까 자연 허영(虛榮)을따르는 여배우는 영원히 허영을 쫓차갓고 타락(墮落)을선언한 ... 여배우는 영구히다시 건지지 못할 타락의 기로(岐路)에로 빠지고 말엇던것이다. 문예 여기에 조선의 영화예술(映畵藝術)이 급속한 발전을하지 못하게된것은 지나간 과거(過去)를 미루어 우리는 용이히 수긍(首肯)할 사실일것이다. 여배우뿐만이 아니라 남배우에게도 그들의슬픈 역사를들을수잇다. 여기에 쓰는 신일선(申一仙)과김연실(金蓮實)도 그들의 하나일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아리랑』시대부터 잘 알고잇는김태진(金兌鎭)씨에게 들은대로 두기로하엿다

신일선

신일선(申一仙)은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조햇다. 그래서 보통학교에 단일쩍에도 학예회 가튼것이 잇는때면 일선은 언제나 인끼엿다. 그러나 불시 빈한한 가정에 태어난일선은 보통학교를 중도에 고만두고 흥행극단으로 뛰어들어막간(幕間)의 가수(歌手)가되엇던 것이다. 얼굴이 이쁘고 노래도 잘하는 일선은 그야말로 막간의 인끼를 폭풍가치 휩쓸엇든 것은 다시 말할것도업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열넷. 그는 열넷이란 어린 나이에도 불고하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막간의 여가씨가되어 유랑(流浪)을 시작하엿던 것이다.

바루 그 당시에 나운규(羅雲奎)씨가 주재하던 『조선키네마』에서는 『아리랑』을 촬영하려고 대본(臺本)도 기계도 모두 작만해노코 방금 여배우를 전조선으로 물색하던 중이엇다. 그래서 청진(淸津)의 조그만 극장에서 막간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일선을 발견한것은 주인규(朱仁奎)씨엿다. 그는 당장 서울로 돈을 부치라고전보를 첫다. 서울서 돈이 오자 일선은 주인규씨와 또는 그때까지 일선을 따라다니던 그의 오빠와 아무도 몰래 극단을 탈출하여 서울로 올라오고 말앗다. 이리하여 일선은 비로소 은막(銀幕)의 여왕으로『데뷰─』하엿던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은 인끼의 날개를 펼처 나갓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이 노래와 가티 『아리랑』은 영란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조선영화를 말하려면『아리랑』을 꺼내듯이 과연 나운규의 아리랑은 조선 방방곡곡에서 폭풍적 어끼를 끌엇고 멀리 해외까지 ...

얼마나 만족의 우승을 혼자 남몰루 모르게 지엇는지 모른다. 일선은 당시 영화의 『스타─』로서 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허영의최고 목표여엇다. 그는 다시 꼬칠줄 모르는 인끼에서처 『조선키네마』와는 배반(背反)하고 곳 여어서 이경손(李慶孫)과 비밀계약을한후 『봉황(鳳凰)의면류관』을 박이고 또 강홍식(姜弘植)과 함께 『먼동이틀때』를 제작하엿다. 그때 그의 나이는 십팔세. 그러니까 신일선의 영화배우로서의 생활도 불과이년을 넘지못하엿다. 『먼동이틀때』야 말로 일선의 최후로 빛은 영화인끼엿다.

(사진설명)위는 申一仙出演〃금붕어〃의한장면, 아래는金蓮實

황금의

능주(綾州)의 부호 양(梁)모의 둘째첩이되어 황금(黃金)의 수레를타고 서울을 뒤로하고 호화로운 출발을 한것은 파연『먼동이틀때』직후엿다. 그때는 벌써 그로하여금 조케 말하는사람은 적엇고 더구나 이십안쪽의 젊은몸으로 다만 돈에 눈이 어두어 부호의 첩이되엇다는 사실에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엇던것이다. 그로부터 다섯해가 지난후 일선은 웬일인지 다시 서울에 요연한 자태를 나타내엇다. 아이를 셋이나 나코 시골에서 다만 들어백혀 노리개가 되어 잇던 일선은 다시 돈의힘에 쫏기고 한대롱입어 남편도 자식도 모두 뗄처버리고 다시 그리운 서울로 올라와던것이다.

일선을 다시 마지한 서울은 예전과는달랏다. 일선이 가는곳마다 나타나는곳마다 뭇사람들은 조롱의눈초리로 그를보앗고 멀리서의 손꾸락질을 할뿐이엇다. 그는 할수업시 우선 먹고살기 위해서 만담(漫談)으로나갓다. 좀더 돈이그리워 그는다시 기생(妓生)으로 전락(轉落)하엿다. 물몰래 기생으로서의 일선의인끼는 시원치는 안햇다. 여기서 그는 다시 재수를 부리엇던것이다.

우파(遊廓)포주(抱主)의 넷째첩으로─ 일선은 드디어 갈수 잇는곳까지 가고마럿다. 이제 일선은 또어디로 갈는지. 그의과거를미루어 생각할때 부질업는 염려가 아닐수가업다.

○○○

일선(一仙)과가틈 시대(時代)에 난 탓일까, 일선과가치 돈이 그리운 탓이엇슬까 ─ 그와 거의 가는길을 거르며 전락(轉落)한 여배우하나가잇다. 그의이름은 김연실(金蓮實)、연실은 언제나 바른대로 제나이를 말한적이업스니까 확실한 나이를 아는사람이 극히 드물게지만 사실 그는 올해 설흔하고도 셋이다. 이 설흔세해동안에 연실이가 걸어온 과거는 용당 예원(藝苑)의 치욕(恥辱)이 아니면 안될것이다.

『금강(金剛)키네마』의『종소래』에 나와 영화배우로서 지반(地盤)을엇자 그는 다시 토월회(土月會)의 후신인 태양극장(太陽劇場)으로 들어갓다. 그는 일찌기 극계(劇界)로 나오기전에 모 의사(醫師)에게 출가하여 장성한 아들까지 잇섯지만 이것저것 다 뗄처버리고

영화로

무대로 전전궁궁하는 동안에 사랑의불작난에서 불작난에로 전전햇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길을 것고잇는 연실에게도 첫사랑의 단꿈은 잇섯다. 물론 그것은 남자편만의 외쪽사랑이엇다고 하지만 연실에게는 일생을두고 잇지못할이야기리라. 그 사나이야말로 바루 미국유학을 갓다가 연실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한 이모(李某)이엇던것이다. 이모가 연실을 연모하기는 휘문고보 (徽文高普) 재학당시엿다. 『종소래』에 출연한 연실의 인끼와 용용속에 철저하여 잇는 당시의 연실이가 다지 보잘것업는 일개 중학생의 연정을 바다드릴리는 업섯다 이모는 드디어 『휘문고보』를 중도에 고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갓다.

미국서 이모가 돌아오자 연실은 별안간 호기심에 끌리어 그와 정식 결혼을 발표하엿다.

『아─ 인제야 연실이가 마음을 잡나보다』

사람들은 어러케 생각하고 그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엇다.

낙랑다방

(樂浪茶房)을 사가지고 다방마담으로 이모는 그의 사랑의안해 연실을 꾸미어 보앗다. 그러나 그것도 남가일몽(南柯一夢)이엇다.

연실은 다시 다방(茶房)도 버리고 내지인(內地人)으로 나가 열 면번째의 새『스윗트 홈』을 꾸미엇스니 전락(轉落)에서 전락으로 다룸질 치는이 땅에 떨어진『스타─』를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건지어 줄수가 잇서스랴. 오주일에 소문을 들으면 그는 다시 천진(天津)으로 가서 『바─』의 여급으로 나가 엇다한다.

떠러저버린〃스타〃를말하는 金兌鎭氏

舞台는도라간다

① 女俳優 無常 浮沈記

夕影、監督으로 朝映女學生을撮影

박기채(朴基采)감독으로 이광수(李光洙)원작『무정(無情)』을 엇스므로 『라디오』도 모른척비가 연정되 열찌기『심청(沈淸)』을 발표하고도 어규학(?)감독을 재세사하여 영화감독으로『데뷰』으로 『새출발(新出發)』을 완성한 안석영(安夕影)씨의 원작하여 봉절하게된 조선영화주식회사(朝鮮映畵株式會社)에서는 이번의정부(議政府)의 『스(原作)감독(監督)으로 『여학생(女學生)』을 제작하기로되엇다한다

내용은 모성애(母性愛)를 중심으로 사춘기(思春期)처녀들의 순정(純情)을 그린 명랑편(明朗篇)으로서 음악(音樂)담당은박영근(朴榮根)씨고 제작(製作)은 이재명(李載明)씨 촬영(撮影)은 『국경(國境)』의 황운조(黃雲祚)씨며 주연은 문예봉(文藝峰)양 한은진(韓銀珍)양 김일해(金一海)군이며그외에 『춘향』 모집할때 합격되어 입사(入社)한 신진방란(方蘭)양들일대오와 『스텝』이라한다

(사진은위로부터文方韓의諸孃)

橋本七段·韓相龍 大棋戰

決局「劫」을香餌로 白、魚腹陣이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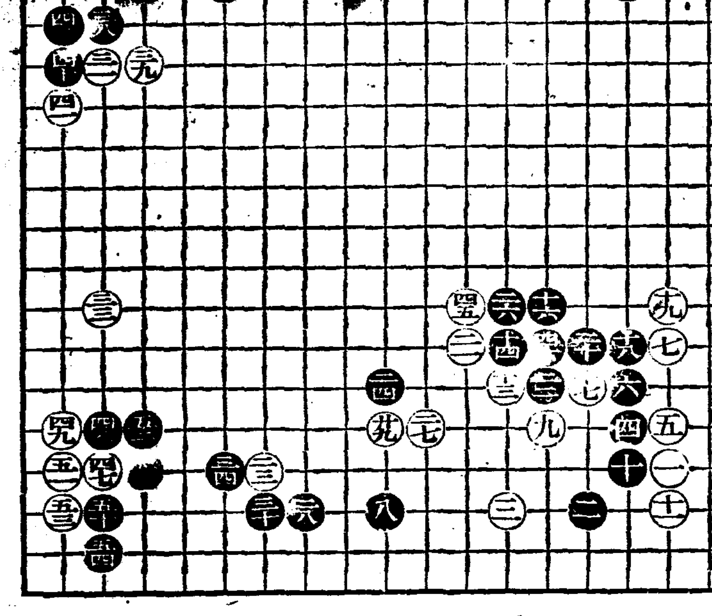
觀◇戰◇記◇權◇秉◇郁

俗言에 淸心寡慾이 碁道의 原理라하엿스나 넘우 過慾에至하면 枯淡처럼빼빼말러 歎禪蓮花萬卉하나니 豈不自覺乎아? 白三七에 丑의三으로 作陣上 二間飛가正調이고 黑三八도 午의五로 午線馬를乘하여 自家를 防衛하는대는 妥當하나 넘무守備만하고 攻迫을避하니 名高手에對하여 謙讓한感이 잇는듯. 白三九로 黑四九까지는 놓고 바드며 再次고잇서 모두가 細手에不過하다. 그러나 이雲梯에白은 先手를拔하여 四三軍이 漸入佳境하니 黑四四도 前功可惜이될까 疑慮하여 巳의二로 依例의수응을 한다. 그러고보니 黑地가모두 萎縮하여졋다! 白은 도선수로 辛의十二에 中央進出하니 黑은 到此하여 渾然히應接하여 劫을따고보니 白은第三次로 神變을볼려에 左下隅에 黑將點을睨着한다 黑四八으로 懷劍石으로 順受치안하고박그로應對하니 白四九가도로 未의一五로反押한바 어는在來의 花點碁에도이러한方式이잇다.

橋本氏도 아마이點만은 雷同한듯. 黑五〇으로乃至五四와白五三은旣定한問答이니 다시容喙할바가업다. 只今一例를들어解한다면 白의布局作戰이別로神奇한 變化도업지 平淡한手段이나 그중에劫을달아 三次式先手로東西南에 電閃風馳하니 참여기대하야 巨腕의名實을禮讚한다. 더구나白의一三劫을香餌로使用하야『中央』魚腹陣이 漸次擴大될것이니 一層더興味일까?

(5) 七段 橋本宇太郎 三子 韓相龍

○二七	丑의三
●二八	午의五
○二九	巳의六
●三〇	未의六
○三一	未의七
●三二	未의五
○三三	卯의二
●三四	巳의二
○三五	辛의十二
●三六	己의十三
○三七	午의十六
●三八	午의十五
○三九	未의十五
●四〇	午의十七
○四一	未의十六
●四二	巳의十五
○四三	未의十七
●四四	午의十八
劫點	
●三	己의十四
○五五	己의十三
●五八	己의十三



라디오프로

六日 (火曜日)

◇午前六時 (東) 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家庭메모 日用品時價
◇正午 (東) 時報
◇午後〇時五分 (東) 和洋合奏 江東賓館樂團 指揮小松榮造
◇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朝鮮料理이야기」 講演韓士朴容緖
◇同四時 뉴─스 經濟紹介
◇同四時三〇分 京城實業野球聯盟리─그戰實況(兩隊)─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〇分 조선음악 1장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新羅의花郞道와李朝의鄕約法」(二)柳子厚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東) 管絃樂 交響曲第四番 五短調 作品九八 부람스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요─제푸·로─젠스톡크
終─세레나데 코게르게作曲 하이든作曲 解說 金管鎭
◇同八時四〇分 歌謠 尹基喜作 金元浩 曲 옷가지 雲仙
◇同九時 唱劇 一、江上 蓮花 二、鳴龍歌 林少香 丁元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番組 豫告 國民歌謠
◇同一〇時 軍歌 지나가는 뉴─스

第一放送

◇同一〇時一〇分 軍歌 ─도號
◇午前六時三〇分 (東) 라디오體操 (二十四)
◇同一一時 (大) 小學生時間 (第二)
◇午後二時 (各) 小學生時間 (第三)
◇同三時二〇分 防空講演 (平壤) 同四時四〇分 國民歌謠
◇同六時一〇分 (東) 浪花節
◇同七時 ... ◇同九時一〇分 ...